

샤이니 멤버 키, 연극서 문제해결의 키가 될까

‘지구를 지켜라’ 연극 데뷔
천재소년 ‘병구’ 역 맡아
외계인에 납치된 ‘강만식’
구할 수 있을 것인가
SF소재를 소동극으로 그려

‘민병열’로 불리는 키(25·김기범)가 연극무대에서도 열화가 될까. 동명영화(2003)가 바탕인 ‘지구를 지켜라’로 연극에 데뷔하는 그를 ‘샤이니’ 멤버 키는 12일 서울 대학로 아트위시어터 1관에서 ‘이제는 개런티 극장의 규모보다는 좋은 작품과 장르,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8년 개봉한 ‘지구를 지켜라’는 재기 발랄한 상상력으로 마니아층을 구축한 장준환 감독의 SF 블랙코미디 영화다.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과대망상증 환자의 페이스, 현대사회에 민연한 문제 의식을 녹여내며 의미를 평가받았다.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뿔뿔 뿔친 병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병구에게 외계인으로 지목돼 납치된 ‘강만식’, 병구의 조력자인 ‘순이’, 병구와 순이를 쫓는 ‘추형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연극 ‘지구를 지켜라’는 외계인이라는 SF 소재를 마음 속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병구와 그 상처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서 문제해결의 키를 쥔 강만식, 두 사람의 키치적이고 재기 넘치는 소동극으로 그리면서도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다. 2012년 ‘캐치 미 이프 유 캔’으로 뮤지컬에 데뷔한 이래 4년 간 ‘삼총사’ ‘체스’ ‘인더하이즈’ 등 벌써 총 6편의 뮤지컬에 출연한 키는 연극 출연이 “공부를 위한 계기”라고 판단했다. ‘인 더 하이즈’에서 호흡을 맞춘 이 지나 연출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다. ‘팁 활동에 기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재미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재미있다.’ 장준환 감독을 만나는 등 2년 전부터 ‘지구를 지켜라’의 연극화를 준비해온 이 지나 연출은 키에 대해 “이전 작품들에서 기초를 잘 다져놓았다. 발성도 좋고 연기를 좋아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평했다. “병구 역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더라. 자세가 좋다고 생각했다. 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더니 영화를 몇 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좋아했다. 울에 힘들어서 이 연극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키가 언제 하느냐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연극을 하게 된 것도 있다”며 웃었다. 개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키는 병구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 천재적인 소년인 것처럼 연기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데뷔 무대를 펼친 그는 “마이크를 통해 다시 들리는 내 목소리가 아닌



개성이 강하기로 유명한 키는 병구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 천재적인 소년인 것처럼 연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직접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집중이 잘 된다”며 만족해했다. 내로라하는 젊은 배우들 역시 병구 역을 탐냈다. 이 연출은 “지구를 지켜라”는 마니아적인 영화인데 배우들이 도전하고 싶어하는 작품”이라고 전했다. 키 못지 않게 공연계에서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배우인 이윤과 정원영이 병구 역을 나눠 맡는다. 안드레아 PK-45 행사에서 온 외계인이라 여겨져 병구에게 납치되는 유제화화의

사상 강만식 역을 맡는 세 배우 역시 화려하다. 평소 진지함으로 기억되는 연극계 스타 지현준과 뮤지컬스타 강필석, 서울예술단 단원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도민이 트리플캐스팅됐다. 5월29일까지 대학로 아트위시어터 1관, 프rodu서 이성일 음악감독 김성수, 세트 디자이너 서숙진, 영상디자이너 정재진, 음향 김필수 조명 정구홍, 4만5000~5만 5000원, 페이지·클립서비스·프로스랩, 1577-3363 /정해은 기자

전주 세계소리축제 어린이 그림 공모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는 어린이에게 관소라에 대한 친밀감을 심어주기 위해 컬러(Color)를 주제로 어린이 그림 공모'를 실시한다. 참가대상 자격은 전국의 초등학교생으로 개인 또는 15명 이상의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들은 다양한 색을 활용한 관소리 다섯바탕을 입체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8절지 규격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장려상(4명), 입선(20명), 우수단체(2개교)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 경품이 주어진다. 접수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기간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자세한 문의는 232-839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완주군 안심사 경내

완주 安心寺 종합정비 들어

석조 조형물들의 뛰어난 조형수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보물 제1434호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 및 주변지역이 종합정비에 들어간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安心寺(안심사)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30여채의 전각과 13개의 암자가 세워져 있을 정도의 거찰이었으나, 전쟁으로 인해 모두 불타버리고 현재는 석조 문화재와 최근 복원된 대웅보전 및 적광전과 요사 건물 등이 있다. 이번에 정비하는 완주 안심사 금강계단은 17세기 중반 이후 1759년 이전에 조성된 부처의 치아사티(齒牙舍利)와 의승(義僧)을 봉안한 불사리탑으로, 중앙의 불사리탑이나 네 구의 신장상 넓은 기단을 형성한 방단의 석조 조형물들의 조형 수법이 매우 뛰어나다. 특히 단층 계단 면적의 연화문과 격자 문양 등의 조각수법은 장식성과 섬세함이 부각돼 매우 우수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신장상의 조각 또한 갑옷과 신체의 세부 표현에 있어 매우 세련되고 풍부한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안심사 금강계단은 조선중기 불교 조각상의 이해와 한국 불사리조계단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녔다. /완주=이종복 기자



왼쪽부터 <미국에서 온 모리스> <우리 손자 베스트> <열번째 남자> 스틸 컷

전주국제영화제, 꼭 봐야할 영화 <미국에서 온 모리스> <우리 손자 베스트> <열번째 남자> 등 발표

전주국제영화제는 14일 온라인 예매 개시를 맞아 필수 감상 영화 9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천작은 <우리 손자 베스트> <르 몰랑> <알리, 미스터 피그> <미스터 피그> <투나, 열 번째 남자> <다나엘 부르만, 미국에서 온 모리스> <체드 하티건, 최악의 여자> <김종관, 배우로 산다> <요코하마 사토코, 첫사랑>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알벤드라스, 위협> <필립 그랑드외의 로 총 9편으로 이들 영화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들로

구성됐다. 우선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6' 선정작인 <우리 손자 베스트>는 집을 나와 고시촌을 전전하는 약성택을 청년 교환과 평생 좌파적결을 외치는 애국보수 노인 정수의 범상치 않은 관계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는 영화다. 월드 시네마의 너른 지형을 보여주는 '월드시네마스케이프:스펙트럼'에는 세 편의 영화가 소개됐다. <르 몰랑>은 1930년대의 대만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대만 최초의 근대예술가

그룹인 르 몰랑 시인회를 다룬 영화이며, <미스터 피그>는 노년에 접어든 농부가 아끼는 돼지 하워드와 함께 하는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다. <열 번째 남자>는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애증의 부자관계를 다뤘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해외성형작 <미국에서 온 모리스>는 독일로 이주한 흑인 소년 모리스의 성장영화이며, '한국전쟁작' <최악의 여자>는 관계에 얽매어 허우적거리는 인간 군상들을 묘사한다. '시네마페스트 <배우로 산다>'는

만년 단역 배우 카메오카를 통해 무명 배우의 분투기를 그린 영화다. 그 외에 '스페셜포커스 <첫사랑>'은 살인 누명을 쓴 남자를 통해 힘의 논리에 압도되는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 한다. '필립 그랑드외의:영화언어의 재발견 <위협>'은 네 무용수의 신체를 영화적 언어로 재조합해 서사나 이미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펼쳐지는 이미지를 영화에 담았다. 이들 작품은 14일에 시작 된 온라인 티켓예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개최

2016년 전북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이 오는 29~30일 양일간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문예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사)전북작가회의와 최명회문화학원이 주관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한다. 참가대상은 학교와 개인이며, 시제는 날짜별로 다르게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메일(jonjilhonbul@nate.com)과 전화 284-0507로 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시상내용은 운문과 산문별 정월 6명으로 이들에게 전라북도교육감상과 40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된다. 그의 입상자 54명에게도 상장과 상품이 주어진다. 입상자는 개별 통보한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흥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5일>

▷쥐띠
46년생: 문서에 결성이 비추는 운이다.
60년생: 일적으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나 타인을 조심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운.
84년생: 자신의 일에 시가 걸루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소띠
48년생: 반절만족의 운이다.
6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3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사소한 일도 크게 느껴지며 감정이 고조되니 주의하라.
85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해도 큰 도움을 안 된다.

▷호랑이띠
50년생: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다.
62년생: 판단오류나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7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시비가 발생한다. 때로는 화유정척이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잊지 말라.
86년생: 금전운이 안 좋으니 투지나 투기는 금물이다.

▷토끼띠
51년생: 작은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운.
63년생: 놀랄 일이 발생하니 원형은 삼가고 타인과의 불화를 미리 예방하라.
75년생: 감기와 같은 기저지 계통의 질병에 주의할 요하는 운.
87년생: 중요한 일은 다들오류로 미루는 것이 좋다.

▷용띠
52년생: 도의주는 사람이 나타나 힘든 일도 곧 풀릴 것이다.
64년생: 아직은 불리하니 내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봐라.
76년생: 외부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일이 더 중요.
88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광산까지 말고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범띠
53년생: 지금의 상황이 불리한 것 같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파장일 혼임을 잊지 마라.
65년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확할 것이다.
77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 쓸 일이 생기는 운이다.
89년생: 문기에는 쓴 소리지만 귀를 기울이면 말 속에 해답이 있을 것.

▷말띠
5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많으니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라.
66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라.
78년생: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니 사람을 골라 삼대해야 한다.
90년생: 지나친 욕심은 회를 무른다.

▷양띠
55년생: 기존의 것에 기대왔자 결실을 맺지 못한다.
67년생: 사소한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작은 일에 더 신경써라.
79년생: 외부로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운.
91년생: 금전관리에 주의하고 중요한 물건은 가지고 다니지 마라.

▷원숭이띠
56년생: 뜻밖의 귀인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으며 행운이 따르는 운이다.
68년생: 지나친 욕심만 무리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80년생: 타인관계에 신경을 쓰면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금전거래는 심기라. 상대가 처음과 나중의 행동이 다른 것이다.
69년생: 이성이나 친구 사이에 삼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81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움직이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93년생: 원형은 삼가고 일찍 귀기하는 것이 할이 없겠다.

▷개띠
49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이 있으며 기쁜 일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안정적인 운이다.
73년생: 외부적으로 구설, 시비, 실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처음에 순하게 보면 후에 얻게 되니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돼지띠
4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71년생: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운이다. 기버은 신책이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볼 것.
83년생: 급하게 상황에 쫓겨 결정을 내리면 불리하니 차분하게 생각하라.